

아미쉬 공동체의 윤리 분석: 기독교 종교성, 소비문화, 예배갱신, 평화론 모색*

이장형 (백석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왜 아미쉬 공동체에 주목하는가?
- II. 아미쉬 공동체의 역사와 그 존립의 필요성 이해
- III. 아미쉬가 주는 교훈: 예배, 직제, 기업윤리
- IV. 아미쉬의 생존 원동력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8.42.07>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5941). 연구관련 미국 출장(2018년 5월 16일 - 21일)시 아미쉬 가정의 방문, 자료제공 등 연구에 큰 도움을 준 해리스버그 거주 임세근 선생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 ABSTRACT •

An Analysis of Amish Ethics: Searching for Religious Mentality,
Consumption Culture, Worship Reformation, and Theory of Peace

Prof. Lee, Janghyung (Baekseok Univerity)

This research studies how Amish people have established a traditional, pure life of faith, and a primeval lifestyle based on that faith. First, Amish people's worship style has a profound meaning as communitarian as they have pursued community-centered worship services. Second, the Amish community's organization shows an excellent role model to Korean church as such that Amish diocese is normally composed of 25~40 families, and there are three types of duties -- composed of Bishop, Deacon, and Minister -- who are supposed to be chosen by drawing lots. The third point of the Amish community's characteristics is that their business system and work ethics are based on the ideas of humility and purity. Lastly, the Amish community has been able to overcome a history of hardship with patience as they have been trying to communicate with their neighboring communities.

Key words: Amish Community, Bishop, Deacon, Humility, Purity, Minister, Worship

I. 들어가는 말: 왜 아미쉬 공동체에 주목하는가?

아미쉬 공동체는 미국 대륙에서 주로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오하이오(Ohio), 인디애나(Indiana) 주 등 3개주에 걸쳐서 많은 종교 인구를 갖고 있는 비교적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독교계 소종파 가운데 하나이다. 그들은 자동차와 전기 등 현대문명을 이용하지 않는 집단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2006년 펜실베이니아 니켈 마인즈(Nickel Mines)의 아미쉬 학교에서 마을의 우유배달 트럭기사 찰스 칼 로버츠4세(Charles Carl Roberts IV)가 충기를 난사한 사건으로 5명이 죽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¹⁾ 이 때 아미쉬 사람들이 범죄자인 로버츠4세를 용서하고 그의 가족들을 위로한 일화가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전에는 주로 퀼트(Quilt) 공예가들 사이에서 아미쉬 문양 및 그들의 제품들이 하나의 트렌드로서 주목 받는 경우가 아미쉬 이해의 대부분이었다.²⁾

1998년 도널드 크레이빌(Donald B. Kraybill)의 ‘아미쉬와 메노나이트 교단의 미디어 수용에 대한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³⁾ 그는 아미쉬 공동체가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공동체의 종교적 영혼을 황폐화할 수 있으며 공동체 생활의 본성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금지한다고 했다. 특히 가정을 벗어난 성적인 관계, 이혼,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미디어의 내용들을 담은 가치관을 수용하지 않고, 현대문명 중 계산기, 워드 프로세서 차원의

1) 이에 대한 이야기는 ‘Amish Grace(아미쉬 그레이스)’라는 책으로 발간되었다. 도널드 크레이빌, 스티븐 놀트, 데이브드 위버 제커/김재일 옮김, 『아미쉬 그레이스』(서울: 뉴스앤조이, 2009).

2) cf. 임세근, 『단순하고 소박한 삶 아미쉬로부터 배운다』(서울: 리수, 2009), 303-310.

3) Donald B. Kraybill, “Plain reservations: Amish and Mennonite views of media and computers,”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Volume 13, Number 2, (1998), pp. 99-110,

기계는 허용하고 전화와 팩시밀리의 선별적 허용, 컴퓨터 및 인터넷, 텔레비전은 금지하는 전통을 갖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논문 발표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도 아미쉬의 입장과 생활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오히려 특이한 것은 다른 문헌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아미쉬 공동체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아미쉬의 미국 내 분포에 관하여 임세근은 아미쉬 공동체가 발행하는 <레이버 연감>을 기초로 아미쉬 공동체에 대해 2007년 현재 미국 25개 주와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흩어져 1,605개의 교구를 이루고 있으며 추정된 아미쉬 교도수는 약 24만 명에 이른다고 설명하였다. 주 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오하이오 주에 401교구(약 6만명), 펜실베이니아 주에 364교구(약 5만 4000명), 인디애나 주에 281교구(약 4만 2000명)순으로, 이 세 개 주에 전체 아미쉬의 약 70%가 거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⁴⁾ 임세근은 이러한 증가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50만명, 2050년에는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⁵⁾ 기독교를 비롯한 다수의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미쉬 공동체의 양적 증가는 현실이 되고 있다. 2014년 통계를 스티븐 놀트(Steven M. Nolt)의 저서에서 볼 수 있는데, 오하이오 주에 498교구(67,230명), 펜실베이니아 주에 453교구(67,045명), 인디애나 주에 356교구(50,195명)순으로, 캐나다 온타리오 교구 4,860명을 포함하여 290,090명으로 집계하고 있다.⁶⁾

그런데 종교 공동체의 변화가 별로 없다는 점은 연구의 새로운 주제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며 그들이 폐쇄적인 집단이어서 관련 연구가 나오기 무척 힘든 대상이기도 하다. 대중들에게는 아미쉬의 일상이 영화 위트니스(Witness)⁷⁾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고, 아직도 막연한 호기

4) 임세근, 『단순하고 소박한 삶 아미쉬로부터 배운다』 (서울: 리수, 2009), 51-52.

5) 위의 책, 51.

6) Steven M. Nolt, *A History of the Amish* (New York : Good Books, 2015), 357-8.

심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이들은 많지만 그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현실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소종파처럼 그들도 자신의 개방에 대해 무척 민감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접근도 쉽지 않으며, 생태학 및 공예, 일반적인 학문적 관심에 비해 오히려 기독교신학, 윤리학적 관심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아미쉬에 대해 발표된 논문은 거의 신학 이외의 분야에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다.

주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지희는 논문⁸⁾에서 아미쉬의 사회통제를 절대적 가치의 엄격한 준수와 유연성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하였다. 아미쉬 공동체에는 고유한 관습과 전통유지를 위한 엄격한 통제와 사회, 경제적 기반마련을 위한 일정한 유연성이 공존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는 구성원들에게 절대적 엄수가 요구되는 ‘Gelassenheit’와 ‘Ordnung’을 설명하면서 Gelassenheit는, 신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겸손함을 강조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써 크게는 아미쉬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지도자들과 교회에 대한 절대적 복종, 작게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가르침과 의지에 대한 복종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회 가치이다. 권위에 복종하는 개개인 구성원들의 태도는 아미쉬 사회의 효과적인 구성원 통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Ordnung은 Gelassenheit를 기반으로 한 생활전반에 걸친 구체적 규제들의 모음으로써, 아미쉬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장치이다. 아미쉬 공동체를 생태공동체로 소개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임상훈, 이시웅⁹⁾의 연구를 볼 수 있다. 논문은 생태공동

7) 이 영화는 1986년 제작, 감독 피터 위어, 주연 해리슨 포드, 켈리 맥길리스, 조세프 소머 등, 줄거리는 아미쉬 교도인 미망인 레이첼(켈리 맥길리스)과 8살의 아들 사무엘(루카스 하스)이 필라델피아 기차역에서 우연히 살인현장을 목격하는데서 사건이 시작된다. 영화를 통해 아미쉬 마을과 공동체의 많은 부분이 소개되었다.

8) 임지희, “아미쉬의 사회통제에 대한 연구: 절대적 가치의 엄격한 준수와 유연성의 결합,”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58-59.

9) 임상훈, 이시웅, “생태공동체의 특성과 사례에 관한 연구: 미국의 생태공동체 아미쉬를 중심으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Vol.2(2002/11).

체로서의 아미쉬를 소개하면서 “미국의 아미쉬는 종교적인 전국적인 규모로써 첨단문명을 등지고 18세기 방식으로 자연과 함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공동체는 전기와 같은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는 대신 대체에너지를 활발히 이용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역공동체로서 아미쉬를 다룬 신동훈의 연구는 아미쉬 공동체를 자급자족 형태의 단순한 폐쇄적 경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방된 경제에 가까운 것으로 보면서 생산, 분배, 지출이라는 경제순환의 관점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출로 이어지며, 재차 생산 활동으로 환류 되는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⁰⁾ 실제로 펜실베이니아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아미쉬의 일상을 소상히 소개하고 있는 임세근의 책도 아미쉬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¹¹⁾ 살펴보았듯이 아미쉬에 관한 사상적, 신학적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고 그들의 생태학적 삶이나 현대문명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생활방식에 치중되어 연구되어 있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많은 사회가 대량소비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11월말에도 뉴욕, 서울 등 세계의 여러 주요도시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 주간을 맞아 싼 값에 원하는 물건을 사기위해 쇼핑센터 앞에서 밤을 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다. 한국사회의 경우에 자신의 한 달 월급보다도 비싼 명품 핸드백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리 낯설지 않다. 특히 대량소비문화는 고층빌딩 및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를 낳은 도시문명과 연결된다. 한국 상황은 비교적 좁은 국토 면적에 인구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도시생활, 특히 아파트라는 규격화, 집단화된 거주 방식을 취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특이한 현상을 나

10) 신동훈, “지역공동체의 삶, 아미쉬 마을,” 『열린 충남』 (2014/1), 56-61.

11) 임세근, 『단순하고 소박한 삶 아미쉬로부터 배운다』 (서울: 리수, 2009).

타내 보이고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¹²⁾ 이런 도시문명은 규격화, 평등과 비교의식에 대한 집착 등 독특한 문화, 문명을 낳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절대적 가치보다는 보다는 상대적 가치와 대중화를 중시하는 사조와 이념이 폭넓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실용주의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하도균은 세속화 시대를 포스트모더니즘과 연관시켜 설명하면서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실용주의라는 말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혹은 물질적인 일에 몰두하며 경험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에만 흥미를 가진다는 뜻”¹³⁾이라고 했다.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종교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식상해서 교회를 떠났다면 교회는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공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거나 ‘성’(聖)과 ‘속’(俗)의 문제에 있어서 속보다는 오히려 성이라는 종교 자체의 정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면에서 현재와 기성 공동체 중심의 시야인 인사이트를 넘어서서 객관화와 타자화된 시각에서 조직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아웃사이트의 과정을 통해 한국교회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바람직한 종교성 회복과 사회 문화적 담론 형성은 한국교회에 당면한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교회 안팎에 자리 잡은 실용주의화 된 현대판 교권주의와 금권주의, 맘몬이즘은 한국교회를 본질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약화시키는 중요

12) 1995년 전국의 가구 중 약 50%정도이던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2005년에는 약 80%정도로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가구 중 약 80%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세범, 안건혁, “우리나라 주택유형 비율의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6집(2010), 45-54.

13) 하도균, “세속화 시대의 효율적인 복음전도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제41집(2014), 513-536.

한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목회자를 훈련시키고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한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력 수준은 많이 높아졌지만¹⁴⁾ 결코 목회적, 윤리적 적임자들을 배출하고 있다고 자신하는 교단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교회에 주는 아미쉬 공동체의 예배, 직제, 직업관, 아미쉬의 생존의 원동력이 주는 메시지를 찾아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¹⁵⁾

II. 아미쉬 공동체의 역사와 그 존립의 필요성 이해

아미쉬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생겨난 유럽 재세례파의 한 분파로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후터파(Hutterites), 스위스형제단(Swiss Brethren), 네덜란드의 메노나이트파(Mennonite)와 깊은 연관이 있는 기독교의 한 분파이다. 이들은 문자적으로는 야콥 암만(Jacob Amman)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유럽에서는 사라졌고 미국에서 기독교계의 소종파 형태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미국에서의 아미쉬도 몇 차례의 변화, 개혁이 있었는데 변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메노나이트 계열과 통합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목하는 아미쉬는 정확히 말하면 올드 오더 아미쉬(Old Order Amish)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메노나이트파 중 올드 오더 메노나이트파가 가장 보수적인 종파였고 현재의 아미쉬와 여러 유사성을 갖고 있다. 이들은 재세례파의 하나로 다른 여러 종교적 공동체처럼 유럽 대륙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온 후예들이었다.¹⁶⁾

14) 1981년부터 주요 교단의 목사양성 신학과정이 교육부의 인가를 받는 신학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면서 신학교육의 체계화, 수업기한 연장 등이 일어났다.

15) 연구자는 2015년 여름 펜실베이니아 아미쉬 공동체 지역을 방문했으며, 지역 주민의 인내를 받으며, 주민들의 그들에 대한 평가도 듣고 그들의 사는 모습을 둘러보았다. 2018년 제2차 방문을 통해 그들의 가정과 직업생활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16) Justo L. Gonzalez, 『현대교회사』 엄성욱 역(서울: 은성출판사, 2012), 211-212.

재세례파가 태동한 배경인 ‘세례문제’는 단순한 종교의 의례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가 문제시된 교회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에 합당하지 않다고 본 이들의 태도는 경제적, 사회적 제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권력으로 행해지는 무력사용도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병역을 기피하고 결국에는 교회의 계습과 조직 등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상당히 반사회적이고 독특한 계파로 주목을 받았다.

스위스 취리히 지역에서 발흥한 재세례파 집단은 스위스 국가교회(개혁파)의 츠빙글리(U. Zwingli)와 시의회에 의해 거부당했고 지도자들이 처형당하면서 메노 시몬스(Menno Simons, 1496-1561)가 그 중심적인 지도자로 등장했다. 시몬스가 16세기 재세례파 지도자들 중에 중심인물로 부상되면서 그의 추종자들을 메노나이트 혹은 메니스트 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유럽에서 심한 박해를 받아 메노나이트들은 오늘날의 프랑스 알자스, 독일의 라인란트팔츠(팔라틴), 바덴 지방 등으로 이주하였고, 병역거부와 유아세례문제 등으로 투옥, 추방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 1618년부터 1648까지 일어난 30년 전쟁이후 베스트팔렌 조약(Peace of Westfalen)이 체결되면서 군주들에 의해 특정 종교가 정해질 때 재세례파는 구교와 신교 양쪽 모두로부터 거부당해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국대륙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⁷⁾

호스테틀러에 의하면 이들은 19~20세기의 신앙 부흥 운동, 전천년설, 근본주의, 세대주의 같은 미국인들의 삶에 영향을 준 많은 종교적 운동을 비껴왔다고 했다.

17) 존 A. 호스테틀러/ 김아람 옮김, 『아미쉬 사회』 (용인: 생각과 사람들, 2013), 70-71.
cf.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기독교대백과사전(제13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4), 673-675.

신학이나 분파주의, 부흥 운동에서 쓰는 용어는 확실히 아미쉬 사람들의 사전에 없다. 아미쉬 사람들은 19~20세기의 신앙 부흥 운동, 전천년설, 근본주의, 세대주의 같은 미국인들의 삶에 영향을 준 많은 종교적 운동을 비껴왔다. 세상과 분리되어 그 경계 바깥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아미쉬 사람들에게 중심이 되는 믿음은 군사력을 사용해 남을 정복하거나 개종시켜 세속적인 진보를 이루어 번영하려는 흐름과 대립된다.¹⁸⁾

대부분의 경우 정치와 종교의 분립이라는 관점이 정착되기 전에는 소위 ‘정교일치’의 사회가 전개되었고, 그런 경우 큰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 때가 많았다. 즉 정치가 물리적인 힘으로 종교를 주도할 때도 있었고, 종교가 교권의 힘을 갖고 정치를 이끌어 가던 때도 있었다. 313년 종교자유령을 통해 모든 종교와 더불어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 황제는 자신이 ‘교회 밖의 일에 대한 주교’임을 자처했고, 국경은 곧 교회 교구의 한계로 적용하였다.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티누스가 참 신국을 실현한 왕이자 교회의 확립자라며 그가 종교자유령을 선포한 일을 칭송했다.¹⁹⁾ 그런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황제가 떠난 뒤에는 영광과 권위가 로마의 주교에게 전이되는 때도 있었다. 교황 이노첸티우스 3세(Innocentius III)는 교회와 교황을 태양에, 황제를 달빛에 비유하여 우열을 논하기도 했다.²⁰⁾ 특히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제국에서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제국과 달리 교회가 국가 권력의 위치를 확보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종교개혁자 루터(M. Luther)는 국가를 경시하는 신정(神政)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는 중

18) 위의 책, 471.

19) Eusebius, *The History of the Church from Christ to Constantine*, 편집부 역, 『에우세비오 교회사』 편집부 역 제10권(“교회의 재건과 평화: 콘스탄티누스의 승리”).

20) 이장식, 「종교와 정치」, 기독교사상편집부편, 『한국의 정치신학』(대한기독교서회, 1983), 262-263.

교와 정치의 두 왕국이 다 하나님을 제정하신 것으로서 대등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여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종속될 수 없고, 양자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며 법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성과 통일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²¹⁾

미국의 기독교는 정치와 종교 또는 정부와 교회가 최소한의 행정적인 분리를 유지하면서도 양자의 밀접한 협력 관계를 주장한다. 그 까닭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종교는 국민 개개인의 개인 생활은 물론 그들의 갖가지 사회 생활과 활동, 즉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의 정신 및 도덕적 규범을 다루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²²⁾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종교와 정치의 엄격한 분리론과 정치의 종교적 중립론이 사회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말 레이건(Ronald W. Reagan) 정부의 등장과 함께 교회가 정치세력화 되어 2000년 초 부시(George W. Bush) 정부의 출현에 큰 역할을 했고, 이런 양상은 한국 교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²³⁾ 결국 현대사회에서 전에 비해 엄격한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신학적 입장과 태도는 그 입지와 권위를 많이 상실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복음주의자들의 정치적 참여가 더욱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는 정치적 무관심에서 정치참여로 나아가면서 성서적 정치윤리의 가르침이 수반되지 않는 공동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문화에 감염되기 쉽다고 진단한 프레스톤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왜 아미쉬에 주목해야 하는가? 적어도

21)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4), 239.

22) 이장식, 앞의 책, 267.

23) 김진호, “한국교회의 ‘신앙적 식민성’이라는 문법”, 『기독교사상』 제51권 제11호(2007년 11월), 70.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아미쉬의 존립 의의는 이런 관점에서 의미 있게 논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아미쉬의 경우는 정치제도 자체를 불안정한 부정적인 제도로 보고, 종교적, 성서적 가치의 우선적인 절대성을 주장하는 세계관을 형성한 공동체였다는 점이다. 그 정도로 이들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기독교가 속된 영역을 벗어나야 하고 성화체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모토를 내세워 기존 교계를 이탈한 공동체의 성격을 지녔다. 이들은 종교와 정치의 밀접한 관계를 가진 힘의 집단에 의해 핍박을 받은 후 정치와 분리된 종교 우위의 수도원적 이분법을 지향했다. 바로 이 정신을 통해 아미쉬는 개혁과 성화를 모색하는 기독교가 깊이 성찰해보아야 할 일면의 방향성과 교훈점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III. 아미쉬가 주는 교훈: 예배, 직제, 기업윤리

아미쉬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방향성과 교훈점은 무엇인가? 미국 사회에서 결코 이들이 세상의 현실을 적응하지 못한 부적응 집단으로 게토화 되었다고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 정치역량과 자본주의의 대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권 아래 있는 한국사회에 있어서 아미쉬 공동체가 갖는 신앙고백의 교훈은 많은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다.

첫째, 예배공동체로서의 아미쉬가 갖는 의미가 있다. 그들은 교회 건물을 세우지 않으며, 공식적인 신학교육이나 교회 조직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런 배경은 기독교 그룹 내에서 역사 속에서 교권주의자들에 의한 피해와 정부의 조직적 핍박 등 재세례파들의 눈물겨운 역사는 신교 및 구교 양 측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핍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격주로 설교예배를 드리는데, 교구 내에서 모든 집들을 순회하

며 드리는 예배 때문이다. 영감 있는 예배를 기원하면서, 회중중심의 예배를 지향하고 그 중 설교자가 지정되기는 하지만 회중을 사로잡는 공동체의 예배가 있다. 주일 오전 9시에서 정오까지 진행되는 주일예배는 격주로 진행하며 통상 세 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순서를 존 A. 호스테틀러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 목사들이 조언을 하기 위해 위층 방으로 들어가 있는 동안 찬송가를 여러 곡 부른다. 두 번째로 불리는 찬송가는 언제나 「로블리트(Loblied 또는 'S Lobg'sang, ausbund)」다.
2. 도입부 설교(Anfang)를 한다.
3. 기도한다(무릎을 꿇는다. 대부분 지역에서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한다).
4. 집사(armen-diener)가 성경의 한 구절을 읽는 동안 신도들은 일어선다.
5. 주 설교(Es schwere Deel)를 하고 성경의 한 구절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6. 다른 목사들이 설교한 목사의 요청에 따라 주 설교에 대한 증언(Zeugnis)을 한다.
7. 설교한 목사가 끝맺는 말을 한다.
8. 목사가 『신실한 기독교인(Die Ernsthafte Christenpflicht)』에서 기도문을 읽는 동안 모두 무릎을 꿇는다.
9. 축복이 이루어진다(신도들이 일어선다).
10. 다음번 집회가 어디에서 열릴지, 이 모임이 끝난 후 구성원들의 모임을 위해 남아야 할지 여부 등에 대한 공지가 있다.
11. 끝맺는 찬송가를 부른다.
12. 모임이 끝난다. 가장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떠나고 나이순으로 그다음 나이든 구성원이 떠난다.²⁴⁾

24) 존 A. 호스테틀러/ 김아림 옮김, 『아미쉬 사회』, 254.

예배는 교우들의 집을 순회하며 드리기에 이웃 교인들의 협력을 받으며 의자 정돈 등이 이루어진다. 예배 후에는 공동식사와 지인방문 등이 행해진다. 세례 받지 못한 어린이들과 공동체 이외의 구성원들은 참여하지 못한다.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두 무릎을 꿇는 행동을 통해 복종과 경의, 집단의 결속을 다짐하는 것으로 알려진다.²⁵⁾ 설교 예배 이외의 명절로는 성탄절, 성금요일, 부활절, 예수승천일, 오순절, 추수감사절 등이 지켜지는데 지역 공동체마다 지키는 특징이 다르다.²⁶⁾ 특히 아미쉬는 성찬식에 이어지는 세족례를 통해 독특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보통 때보다 긴 설교가 행해지는데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 이어지는 긴 설교가 행해지고, 남녀가 각각 서로의 발을 씻기는 의식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²⁷⁾ 문호주는 재세례파와 관련된 헤른후트 형제단의 예배를 설명하면서 “공동체의 삶을 뒷받침하는 사회적이고 개념적인 구조들을 재생하거나 변형시킴으로써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통된 인생관 혹은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것에 일조”를 강조한 바 있다.²⁸⁾

특별히 아미쉬 사람들은 16세기 식 찬송가를 고수하는데 모음집이란 뜻의 아우스분트(Ausbund)를 사용한다. 악보 없이 단순하게 시(詩)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종교지도자들의 희생양이 된 신도들의 비극적인 삶과 사건들을 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독창부는 대화형식으로 희생자, 심문자, 고문자, 당국, 사형집행인 사이의 대화까지 담았다.²⁹⁾

설교에 있어서는, 인위적인 설교보다는 성령의 주도를 지향하고자 하

25) 위의 책, 256.

26) 위의 책, 265.

27) 위의 책, 266-270.

28) 문호주, “헤른후트 형제단의 예배 연구”, 『신학과 실천』 제39집(2014), 60.

29) 존 A. 호스테틀러/ 김아람 옮김, 『아미쉬 사회』, 271.

는 영성을 강조하여 미리 준비한 원고나 메모 없이 한 시간여에 걸쳐 메시지를 전한다. 이는 인위적으로 메시지를 작성하여 효율적인 기법을 통해 전하려는 현대적 수사학 행태의 설교를 각성하게 해준다. 물론 기독교의 입장으로는 응당 직접계시나 예언행위와 같은 신비주의적인 관점을 조심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이들이 수행하는 원시적이며 순수한 메시지 전파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목사는 설교를 담당하는데, 두세 명의 목사가 순서를 정하여 교대로 설교를 한다. 속한 교구에 예배 모임이 없는 주일이나 자신의 설교가 없는 목사는 다른 교회를 방문해 설교를 한다. 목사는 미리 준비한 원고나 메모 없이 교도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교도들에게 하느님의 가르침을 일깨워준다. 이미쉬 교회의 목사들이 목회자를 위한 특별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사전 준비 없이 한 시간여에 걸쳐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감당해내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불가사의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³⁰⁾

이미쉬의 예배 형태가 오늘날 기독교에 주는 교훈은 예배의 원시성(元始性)이다. 현대교회의 예배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지나치게 인위적이고, 기계화되고, 의식화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현대화에 발맞추어 대형화된 예배, 영상예배, 첨단장비에 의지하는 예배, 판매와 카페 시설 설치는 물론이고 부속기업을 경영하는 등 속화되어가는 경향이 농후하다. 침묵 가운데 절대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 종교의 전통적인 수행 방법이며 인간의 삶에 많은 풍요로운 가치들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미쉬 공동체 모습을 통해 물질주의, 번잡함의 지쳐있는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성경중심(찬양은 기본적인 곡조로 악기 없는 일종의 찬트식으로 기억되고 있음) 지나친 악기, 소수의 프

30) 임세근, 『단순하고 소박한 삶 이미쉬로부터 배운다』 (2009), 68.

로페셔널에 의존되어 공연화되고 있는 예배를 아미쉬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 앞에서 반성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현대 사회에서의 기독교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한 찬양인가?’, ‘누구를 위한 설교인가?’, 그리고 ‘진정한 영광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되돌아보게 한다. 이런 면에서 별도의 전용 공간 없이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드리는 예배, 성경을 암송하고 해석하는 소모임은 개신교의 셀모임이나 기타 공동체도 본받을 만한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인위적인 조직을 구성하거나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감당할 만한 숫자들이 교구라는 단위로 결속되어서 가정을 중심으로 협력하게 될 때 많은 신앙적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둘째, 아미쉬 공동체의 직제가 주는 의미가 있다. 많은 종교들이 차츰 매력력을 잃어가면서 종교인의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아미쉬 공동체의 인구는, 제한적인 숫자 범위 내에서의 변화이기는 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미쉬는 보통 25가정 내지는 40가정이 하나의 교구를 이루는데 강, 하천, 도로 등이 경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고, 직분에는 주교(감독), 목사(전도사), 집사가 있다. 교단의 장(長)을 뽑는 과정에서 금권선거 이야기가 나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신학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목사를 뽑을 때 예비뽑기에 의존하는 아미쉬의 전통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사점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물론 예비뽑기에 의존한다고 해서 모든 구 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일차로는 추천을 받아 후보군을 구성한 후 적임자 두세 명을 놓고 추천한다고 한다.

이렇듯 아미쉬의 성직자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들은 성직에 임할 때 진정한 목사의 역할과 의무를 알기에 거룩한 부담을 느끼며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존 A. 호스테틀러(John A. Hostetler)는 아미쉬 공동체의 교구직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아미쉬 공동체의 구성은 교회 교구에 집중되어 있다. 선출된 관리직은 디너라고 불리며, 교구마다 세 가지 직위가 있다. 즉, 전통적으로 포엘리거-디너(최고 권력을 가진 목사 또는 주교), 디너 춤 부호(성경을 설교하는 목사 또는 전도사), 그리고 아르멘 디너(가난한 자를 향한 목사 또는 집사)로 나뉜다.³¹⁾

주목할 만한 점은 이때 신도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선택받은 종복에게 깊은 공감을 표하며 눈물을 비치거나 심하면 흐느껴 운다는 것이다. 모든 구성원은 집회가 해산될 때 새로이 임명받은 형제를 위해 용기를 갖고 기도하도록 명령받는다. 비록 구성원 일부가 그 사람이 다른 후보자보다 자격이 떨어진다고 여긴다 해도, 그것이 신의 선택이기에 구성원들은 결과에 만족한다.³²⁾

현재, 많은 개신교 교단들이 로마 가톨릭보다 더 치열한 교권 및 교직 경쟁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 현상도 있다. 아미쉬의 이러한 성직자 임직 전통은 한국 기독교에 귀감이 된다.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아직도 명예욕에 집착하여 금권이 개입된 모종의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이와 관련된 상당한 부작용들이 여전히 일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성찰해야 한다. 많은 교단에서 자발적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사회의 윤리적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논란거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³³⁾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방법론적인 면에서 아미쉬 공동체의 순번제, 추천제 등을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그 순수한 정신을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시적 순수성과 겸손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형태와 직업윤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모던 사회의 영향이 한국교회를 위축시키는

31) 존 A. 호스테틀러/ 김아림 옮김, 『아미쉬 사회』, 132.

32) 위의 책, 137.

33) 권혁남, “목회자의 윤리적 리더십과 신앙공동체 행동양식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제32집(2012), 34.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윤리적 무규범화는 기독교 입장에서 수용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행태이다. 아울러 소비문화의 폐해를 잘 파악하고 절제되고 규모 있는 경제생활을 수행하면서 정신적, 도덕적 영감의 회복을 통해 진정한 영성 공동체의 모델을 기독교가 제시하게 될 때 교회는 그 존재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미쉬 공동체, 메노나이트 교단, 퀘이커 교단의 직업, 기업윤리를 고려하면서 수도원 운동, 공동체 생활운동, 협동 조합운동, 기타 분과주의적 기독교 운동 등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아미쉬 공동체는 이 시대를 향해 윤리적 소비와 도시문명에 대한 통전적 반성을 촉구한다. 이 관점은 맘모니즘화로 치닫는 한국 기독교계에 심각한 일침으로 와 닿는다. 아미쉬는 소비, 생산 그 자체에 가치를 둔다 기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생활을 우선적 가치로 여기며 그들 특유의 경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공동체에 대한 참여자로서의 관찰과 연구 방법 등을 동원하여 민족학적 연구를 통해 아미쉬를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그들은 소위 겸손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공동체로서 경제적 활동이 겸손이라는 신앙과 도덕이라는 가치와 병립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³⁴⁾

아미쉬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한다. 그들은 생계수단의 자급자족을 추구하며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하며 결코 현대적인 삶의 방식을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³⁵⁾ 땀 흘려 뿌린 대로 거두고자 하는 정직한 양심과 태도가 이들의 심적인 밑바탕이다. 이들이 자동차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계문명을 멀리한 이유가 무엇일까? 가족 간의 거리를 멀리하고 그 결과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을 금하는 것도

34) 물론 이 연구는 펜실베니아 랑카스터(Lancaster) 중심이라는 한계를 갖지만, 이 지역이 가장 대표적이며 큰 규모의 아미쉬공동체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의미가 있다.

35) 존 A. 호스테틀러/ 김아람 옮김, 『아미쉬 사회』, 제6장 '농업과 생계'(141-177) 참고.

다양한 오락과 성적인 문란함이 텔레비전을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위협이 된다고 본다. 그들은 목수, 소공예 등 자영업을 하기도 하지만 그 규모는 7명 이하의 작은 기업에 한정된다. 큰 규모의 직장은 결코 선호하지 않는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소비,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성실한 노동의 참여와 공동경영을 통한 경제를 도모한다.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들은 공동농장이나 공동소유를 지향하거나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자식들에게 대물림 되는 경우가 많지만 경작지 확보는 그들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그들이 이주하고 확산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미주 일대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경작지를 찾아서 확장된 면이 있다.³⁶⁾

아미쉬는 사회보장제도나 연금, 보험 등에 대해서는 종교적 자유를 축소하고 침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문제 때문에 연방법에 의해서도 그들은 보험, 연금 등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³⁷⁾ 그러나 그들은 지방세, 교육세 등 주요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정부와 협력하는 측면도 있다.³⁸⁾ 선거에 있어서는 개인적 선택권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물론 사안에 따라선 그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한 기록도 있다.³⁹⁾

IV. 아미쉬의 생존 원동력

아미쉬가 시련의 역사를 인내하며 오늘날까지 존속하는 원동력은 무엇

36) Leo Paul Dana, *A humility-based enterprising Community: the Amish people in Lancaster County*.

37) 존 A. 호스테틀러/ 김아림 옮김, 『아미쉬 사회』, 316-320.

38) 위의 책, 301.

39) 임세근, 『단순하고 소박한 삶 아미쉬로부터 배운다』 (2009), 89.

일까? 아미쉬의 생존의 원동력은 소통하는 공동체라는 점, 자발적으로 형성된 소종파라는 점, 예배와 교육적 결속이 강하다는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아미쉬의 생존의 원동력은 소통하는 공동체라는 점에 있다. 이들은 미국에 거주하지만 이들만의 방언인 독일어의 한 갈래를 갖고 있으며 찬송과 성경도 독일어 판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웃들과는 영어로 대화하며 소통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⁴⁰⁾ 또한 도시에 사는 외부인들의 회사트럭이 아미쉬 사람들이 생산한 우유를 모아서 가져가고 달걀, 농산물, 가축을 시장까지 운반하며 버터, 빵, 식료품을 주간 일정에 맞추어 외부인들이 아미쉬 농장으로 배달해준다.⁴¹⁾ 이 즉 그들의 생활방식은 게토화 된 담으로 둘러진 그들만의 특별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잉글리쉬라고 말하는 이웃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교제하며 생활한다. 이주의 역사 속에서 종교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그들 특유의 문명에 대한 금기와 생활방식을 추구하다 보니 일종의 집단 거주 지역이 형성된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했던 것은 아니며 더욱이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도 아니다.

트뢰치(Ernst Troeltsch)는 분과 유형과 교회 유형을 구별하면서 교회의 영향력이 통전적으로 세계 및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모델을 강조한 바 있는데,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여전히 설득력을 갖고 있는 모델은 리차드 니버(Richard Niebuhr)의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널리 알려진 논변이고 도식화의 위험과 상당한 서구적 한계, 그리고 시공간의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과 태도를 잘 분석해주었다. 리차드 니버는 모두 다섯 가지로 정리해

40) 존 A. 호스테틀러/ 김아림 옮김, 『아미쉬 사회』, 285-287, 461-462.

41) 위의 책, 467.

주었는데, 첫째 유형이 “대립의 유형”(Type of opposition)으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이 유형은 문화와 기독교의 대립을 주장한다. 즉 기독교적 삶이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대표자로는 터툴리안(Tertullian), 톨스토이(Lev Nikolayevich Tolstoy), 그리고 소종파 운동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세기 수도원 전통에서는 결혼이나 가정생활까지도 영성생활에는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행위는 죄악이다”라는 사교가 팽배했으며, 문화와 성은 여전히 위험한 주제로 간주되고 있다.⁴²⁾

리차드 니버가 말하는 다섯 가지의 유형들 중 이미쉬에 적절하게 들어맞는 유형은 이른바 “대립의 유형”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주목할 점은 이미쉬가 리차드 니버의 유형 분석으로 보면 비록 대립의 유형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이웃과 단절된 계도화된 이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며 자신들의 신앙고백에 저촉되지 않는 한 국가의 법을 존중하며 지킨다는 점이다. 특히 이미쉬 공동체의 지도그룹은 대중매체를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 잡지 등을 통해 현재의 정치, 사회적 현실을 냉정하게 인지, 분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잉정보 사회 속에서 그들은 매우 효율적으로 사회와 교통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둘째로, 이미쉬의 생존의 원동력은 외적 강제에 의한 소종파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그들은 재세례파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제도나 경제적 관계 등을 통해 사람을 인위적으로 종속시키려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직 자발적인 참여와 순종의 미덕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인 참여,

42) Richard Niebuhr,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52-228.

신앙적 가치관, 삶의 방식 등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결속력은 견실하게 다져지며 그 결과 견고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소종파들이 지닌 문제점은 많은 경우에 일종의 물리적 힘이나 조직력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런데 아미쉬는 이런 집단과는 달리 사유재산 제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시중은행 중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담당자가 있을 정도로 신뢰도도 있고 금융을 이용할 줄도 아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상당히 파격적인 개혁을 이들 공동체 안에서 요구하던 그룹들은 메노나이트파와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⁴³⁾

특히 그들의 구성원 모두 강제적이거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다. 특히 럼스프링가(rumspringa)라는 일종의 통과 의례가 있다. 이곳 저곳을 돌아다닌다는 의미를 담은 럼스프링가는 청소년기를 마치고 성년이 되는 이들은 그대로 아미쉬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를 떠날 것인가에 대해 본인의 의지로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아미쉬 사람들의 일탈된 모습을 보았다면 대부분 이런 기간의 청소년일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⁴⁴⁾ 아미쉬 구성원들은 자원하여 공동체에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외부적 압력이나 구속력에 의해 유지되는 소종파들과는 다른 강한 결속력과 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럼스프링가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일종의 자기결정권을 주는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아미쉬의 생존의 원동력은 격주로 드리는 순회예배와 원룸스쿨의 강한 교육적 결속에 있다. 아미쉬의 외견상 가장 허약하다고 지적할 수 있는 면은 조직력이 느슨한 듯한 ‘교회’와 ‘예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

43) 대표적인 경우가 자동차 소유와 설교예배를 위한 예배당 사용을 인정한 비치 아미쉬(Beachy Amish), 전기, 트랙터 등의 농경 기계사용을 인정한 새로운 아미쉬(New Amish)등이다. 존 A. 호스테틀러/ 김아림 옮김, 『아미쉬 사회』, 331-332.

44) 임세근, 『단순하고 소박한 삶 아미쉬로부터 배운다』 (2009), 116-120.

나 외적으로 허약하게 비쳐지는 교회와 예배에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원동력이 숨어 있다. 세족식의 경우에도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만든다.⁴⁵⁾ 그들은 교회와 예배를 통해 그들은 동지애와 선조들의 신앙정신을 계승하게 하는 진정한 교육적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학교도 무학년제이며 교육시설 또한 열악한 형편이다. 그러나 그들의 교육은 그 어떤 학교교육보다도 뛰어난 공동체 정신을 교육하며 이 정신을 지탱하고 확산하는 힘을 갖는다. 호스테틀러는 아미쉬의 힘은 이러한 교육의 뒷받침을 받는 공동체의 친밀성, 아이와 노인 존중, 종교적 생활방식, 상부상조, 속된 영향을 피하려는 관습 등에 있다고 보았다.

아미쉬 공동체는, 미국 사회에 일찍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고 이제 다시 찾으려 하는 몇몇 속성을 보존하고 있다. 가족과 공동체의 친밀한 관계, 아이와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 종교적인 생활 방식, 위기가 닥쳤을 때 서로 돕는 관습, 기술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제한, 파산하지 않고도 품위 있게 죽음을 애도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부조가 그것이다.⁴⁶⁾

현대화된 교육제도와 학교라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교육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사례를 바로 아미쉬 공동체에서 보게 된다. 그들은 전 학생을 한 교실에서 수업하는 방식을 취한다. 소위 원룸스쿨인 것이다. 교사도 한 명 뿐이고 수업시간도 최소한이며 고학년이 되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는 친밀한 구성 체계를 갖는다. 교회 또한 현대화된 학교식의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이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체계를 지향한다. 아이들은 세례를 받지 않아 격주로 드리는 설교예배에

45) 한국상황에서도 세족식은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담당할 수 있다. 민장배, “세족식의 의미와 실천 방안”, 『신학과 실천』 제36집(2013) 참조.

46) 존 A. 호스테틀러/ 김아림 옮김, 『아미쉬 사회』, 467.

정식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예배의 준비와 참여의 모든 과정을 목격하고 배움으로써 살아있는 교육이 된다.

공동체 전승의 계승과 삶의 태도를 통한 학습 자체가 이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다. 친첸도르프의 경우도 형식적으로 정형화되고 질서정연한 예배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훈련 받음으로써 예배 참여자들이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⁴⁷⁾ 이러한 교육은 이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감을 갖추게 하며, 태도와 능력까지도 함양하게 한다. 물론 원론 스쿨이 갖는 한계도 있으며 특히 초보적인 교육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에 걸맞는 전문인들을 양성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사진만 해도 많은 유사성이 있는 메노나이트 교파의 교역자들이 초청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수백 년의 어려운 기간에도 그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중심의 교육을 통해 꾸준히 공동체를 지켜온 저력을 존중해야 한다.

연구자가 보기에는 고등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그들의 인척이라 할 수 있는 메노나이트가 없다면 그들에 관한 연구나 정치적, 학문적 접촉도 불가능하리라 본다. 비록 오랜 기간 공동체를 지탱해온 저력이 있지만, 진정 아미쉬가 자생적인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이들 공동체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리라 본다. 메노나이트파의 도움 없이 과연 아미쉬가 유지, 존속될 수 있을까? 많은 메노나이트 관련 연구자들이 같은 뿌리에 기초한 우호적인 연대감을 통해 깊은 내적, 외적 연구가 유지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미쉬 공동체 내에 일어난 상당히 많은 개혁운동들이 결국은 메노나이트 교파로 통합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유사성, 친근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활동하는 연구자들의 상당수가 메노나이트 계열이라는 점을 통해서도 연대의 밀접성을 엿볼

47) 문호주, “헤른후트 형제단의 예배 연구”, 『신학과 실천』 제39집(2014), 65.

수 있다. 메노나이트와 없이 아미쉬가 존재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 역시 추가적인 별도의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나가는 말

아미쉬 공동체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금하며 가정을 이탈한 성적인 관계, 이혼,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미디어의 내용들을 담은 가치관을 수용하지 않는다. 현대문명 중 계산기, 워드 프로세서 차원의 기계만 허용할 뿐 전화와 팩시밀리의 선별적 허용, 컴퓨터 및 인터넷, 텔레비전은 금지하는 전통을 갖는다.

한국기독교에서 아미쉬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은 한국교회 안팎에 자리 잡은 실용주의화 된 현대판 교권주의, 금권주의, 그리고 맘몬이즘을 성찰하는 데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교회에 주는 아미쉬 공동체의 예배, 직제, 직업관, 아미쉬의 생존의 원동력이 주는 메시지를 찾아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신앙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원시적인 생활과 순수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려는 전통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개혁과 성화를 모색해야 할 한국교회가 깊이 성찰해보아야 할 방향성과 교훈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첫째, 아미쉬 공동체는 예배공동체로서의 의미가 깊다. 이들은 영감 있는 예배를 기원하면서, 회중중심의 예배를 지향하고 그 중 설교자가 지정되기는 하지만 회중을 사로잡는 공동체의 예배를 지향한다. 예배는 교우들의 집을 순회하며 드리며 16세기 식 찬송가인 아우스부트를 고수하고, 인위적인 설교보다는 성령의 주도를 지향하고자 하는 영성을 강조한다. 아미쉬의 예배 형태가 오늘날 기독교에 주는 교훈은 예배의 원시성이다. 현대교회의 예배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지나치게 인위적이고, 기계화되고, 의식화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현대화에 발맞추어 대형화 된 예배,

영상예배, 첨단장비에 의존하는 예배, 설교 영상자료 판매와 카페 시설 설치는 물론이고 부속기업을 경영하는 등 기업화 양상을 띠면서 속화되어 가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들의 원시성이 강한 예배는 ‘누구를 위한 찬양인가?’ ‘누구를 위한 설교인가?’ ‘진정한 영광의 대상이 누구인가?’ 등의 예배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게 해준다.

둘째, 아미쉬 공동체의 직제는 교권화된 한국교회에 귀감을 준다. 아미쉬는 보통 25가정 내지는 40가정이 하나의 교구를 이루며, 직분에는 주교, 목사, 집사가 있다. 이들은 직분자를 등용할 때 제비뽑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물론 방법론적인 면에서 아미쉬 공동체의 순번제, 추천제 등을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그 순수한 정신을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아직도 명예욕에 집착하여 금권이 개입된 모종의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이와 관련된 상당한 부작용들이 여전히 일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성찰해야 한다.

셋째, 원시적 순수성과 겸손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형태와 직업윤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미쉬는 이 시대를 향해 윤리적 소비와 도시문명에 대한 통전적 반성을 촉구한다. 이 관점은 맘모니즘화로 치닫는 한국 기독교계에 심각한 일침으로 와 닿는다. 아미쉬는 소비, 생산 그 자체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생활을 우선적 가치로 여기며 그들 특유의 경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겸손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공동체로서 경제적 활동이 겸손이라는 신앙과 도덕이라는 가치와 병립시킨다. 특별히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땀 흘려 뿌린 대로 거두고자 하는 정직한 양심과 태도가 이들 영혼의 저면에 자리 잡는다.

넷째, 아미쉬가 시련의 역사를 인내하며 오늘날까지 존속하는 원동력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 공동체의 생존의 원동력은 소통하는 공동체라는 점에 있다. 이들은 계도화 된 담으로 둘러진 그들만의 특별한 지역에 거

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잉글리쉬라고 말하는 이웃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교체하며 생활한다. 이들은 소위 “대림의 유형”에 속하지만 이웃과 단절된 계도화된 이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며 자신들의 신앙고백 안에서 국가의 법을 존중한다. 그리고 아이쉬의 생존의 원동력은 외적 강제에 의한 소종과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또한 이들의 생존의 원동력은 격주로 드리는 순회예배와 원룸스쿨의 강한 교육적 결속에 있다. 이들은 교회와 예배를 통해 그들은 동지애와 선조들의 신앙정신을 계승하게 하는 진정한 교육적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과 문화가 보편화될 수 없는 한계점도 있다. 이들이 자동차나 전기 사용 등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문명의 이기를 과연 벗어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들이 명목상으로도 도시문명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반론이 제기될 정도이다. 문화는 비유하자면 마치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이 문화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여 생각하는 태도가 우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문화적인 존재이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며,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또 문화를 형성해가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도 결국 문화를 통해서 매개되는 것이므로 문화에 대한 세심하고도 지속적인 관심이 요청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와 유리된 기독교는 결국 지극히 추상적이며 기형적인 모습이 되고 만다. 리처드 니버의 문화와 그리스도의 유형 분석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교회와 신앙인들이 이론적으로는 다섯 번째 유형인 “변혁의 유형”을 지지하면서도, 문화에 대한 이해나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아미쉬 공동체의 존재는 기독교의 원시적 전통과 본질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보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혁남. “목회자의 윤리적 리더십과 신앙공동체 행동양식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제32집(2012), 29~72.
- 김신양. “사회적경제로 살기 위한 교육.” 『충남경제』 (2014/1), 10-16
- 문호주. “헤르후트 형제단의 예배 연구.” 『신학과 실천』 제39집(2014), 59~81.
- 민장배. “세족식의 의미와 실천 방안.” 『신학과 실천』 제36집(2013), 159~188.
- 신동호. “지역공동체의 삶, 아미쉬(Amish) 마을.” 『충남경제』 (2014/1), 3-9
- 신동호. “아미쉬(Amish) 공동체의 '자발적 간소함.'” 『열린충남』 66(2014), 56-61.
- 이종수. “정직한 평화주의자들이 사는 마을 미국의 '아미쉬(Amish)' 공동체.” 『도시문제』 제45집(2011), 14-17.
- 임상훈, 이시웅. “생태공동체의 특성과 사례에 관한 연구: 미국의 생태공동체 아미쉬를 중심으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제2집(2002), 3-10.
- 임세근. 『단순하고 소박한 삶 아미쉬로부터 배운다』. 서울: 리수, 2009.
- 임세근.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아미쉬 마을의 봄.” 『국토연구』 (2011), 4.
- 임지희. “아미쉬의 사회통제에 대한 연구: 절대적 가치의 엄격한 준수와 유연성의 결합.” 『the combination of fundamental principles and flexibility』 (2004).
- 존 A. 호스테틀러/ 김아림 옮김. 『아미쉬 사회』 용인: 생각과 사람들, 2013.
- 하도균.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효과적인 복음전도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36집(2013), 561~588.
- 하도균. “세속화 시대의 효율적인 복음전도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제41집 (2014), 513-536.
- Clines, David J.A. . *On the way to the postmodern, vol.1*. Sheffield: Jsots 292, 1998, Dana, Leo Paul . *A humility- based enterprising Community: the Amish people in Lancaster County*
- Niebuhr, Richard./김재준 역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Rorty, Richard . *An Ethics for Today*. Newyork: Columbia, 2008.
- Harisson,Rob. Newholm, Terry. Shaw, Deirdre . *The Ethical Consumer* California: sage, 2008.
- Kirkman, Robert. *The Ethics of Metropolitan Growth*. Newyork: continuum,

208 『기독교사회윤리』 제42집

2010.

Nolt, Steven M, *A History of the Amish*. New York : Good Books,2015.

논문투고일: 2018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2018년 11월 09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21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아미쉬 공동체의 예배, 직제, 직업관, 생존의 원동력 등을 찾아보고 있다. 첫째, 아미쉬 공동체는 예배공동체로서의 의미가 깊다. 이들은 영감 있는 예배를 기원하면서, 회중중심의 예배를 지향하고 그 중 설교자가 지정되기는 하지만 회중을 사로잡는 공동체의 예배를 지향한다. 둘째, 아미쉬 공동체의 직제는 교권화된 한국교회에 귀감을 준다. 아미쉬는 보통 25가정 내지는 40가정이 하나의 교구를 이루며, 직분에는 주교, 목사, 집사가 있다. 이들은 직분자를 등용할 때 제비뽑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셋째, 원시적 순수성과 겸손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형태와 직업윤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미쉬는 이 시대를 향해 윤리적 소비와 도시문명에 대한 통전적 반성을 촉구한다. 넷째, 아미쉬가 시련의 역사를 인내하며 오늘날까지 존속하는 원동력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 공동체의 생존의 원동력은 소통하는 공동체라는 점에 있다. 아미쉬 공동체는 신앙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원시적인 생활과 순수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려는 전통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개혁과 성화를 모색해야 할 한국교회가 깊이 성찰해보아야 할 방향성과 교훈을 주고 있다.

주제어: 아미쉬, 집사, 주교, 목사, 겸손, 성결, 예배.
